

큰스님 수행한담

언제나 좋은 열매 맺어요



천상천하가 다 부처님세상
바늘하나 찌를 곳 없이 전부 佛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동선스님이 스무살 때 정성 백양사에서 견당식 후 찍은 사진. 뒷줄 오른쪽 끝이 동선스님.

다. 저녁 공양을 하는데 과일, 음식등을 굉장히 많이 주더군요. 거기서 하루 자고 그 이튿날 유점사를 가다가 마하연을 들었습니다. 마하연에 가니 수좌들이 매일 국수를 해서 점심공양을 한다고 40~50명이 모여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일출봉, 월출봉을 지나가는데 금강산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인간이 아니고 신선이 되어서 갈아가고 있는게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산이 바닷물같은 구름속에서 뽀

련소가 있었어요. 탄허스님이 강의를 하시고 한암스님께서는 화엄론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화엄론을 죽 읽으시다가 질문을 하고 하시면서 직접 지도를 하셨습니다. 보조선님의 수심결, 진심직설 등도 배웠습니다. 이 수련과정은 청년들의 심정 개발을 위한 것인데 악한 마음을 먹지 말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국민들을 교육하도록 수련생들이 마을에 가서 활동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당시 서용스

남편은 아내의 마음에 맞추고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에,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맞추면 세상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나라는 아상을 없애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남의 마음에 맞추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살다보면 사비거리가 사라지게 되고 늘 세상이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백양사와 유점사를 왔다 갔다 하며 아주 어렵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4차 정화불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암스님께서 대처승은 호법승, 비구승은 정법승이라 해서 '고불총림'이라는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대처한 이들은 사중을 보호하고 정법승은 수도에 전념하라는 것인데 대처승은 수도승을 받들고 경배하면서 살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고불총림이라는 규약에 보면 호법승은 정법승 자리에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양사 법당에 호법승, 정법승 석 자리가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비구승으로 들어가 일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월주스님과 함께 정리납도를 다니면서 정화를 하게 되었지요. 그당시에는 대처승이 사찰주지를 다 차지하고 있

나고 골짜기 "나는 나를 고발한 사람은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공산당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몰랐다가 그 사람이 고발함으로써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은혜사 주지를 하다 말고 그렇게 되었는데 징역살이를 하다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주지소임을 못하잖아요. 신도들이 찾아 와서 주지소임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런 말 하지도 말아라. 나는 지금 주지도 아니고 임시로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주지 할 사람이 왔으니 당연히 내놓아야지. 한번 밥을 안 지키면 백가지 천가지 불법이 생기는 법이니 안된다"고 하면서 떠나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운 주지가 사중 재산을 다 팔아 먹고 해서 신도들이 그 주지를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모든 일이 정법으로 가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신도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유마경>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흙을 의지하여 먹고 살기 때문에 흙을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몸과 내가 둘이 아니니 흙이 곧 나요, 내가 곧 흙이라는 뜻이죠. 흙이 곧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또 <유마경>에는 '신수불이(身水不二)'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니 그러므로 물을 사랑하라. 신공불이 즉 공기와 내가 둘이 아니니 공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야심경>에도 뜻있어 공이 곧 색이요, 색이 곧 공이다. 즉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경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불이법문품이 있습니다. 불이법문품에 가면 지수화공에 대해 말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불(火)이 어찌서 너냐? 철학적인 불교의 깊은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火)이 어디에 있냐? 불이 이것입니다. (주먹을 내밀며) 주먹이 곧 불입니다.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자리가 불입니다. 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늘하나 찌를 곳이 없이 전부 불입니다. 사람들이 전부가 불되어버립니다. 전자, 원자, 수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으니 불이 곧 나요, 내가 곧 불입니다.

그러면 부처님(佛)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곧 부처님입니다. (역시 주먹을 내밀며)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불과 내가 둘이 아니고 바람과 내가 둘이 아니고 공기와 내가 둘이 아닌 진리를 꼭 체득했으면 합니다. 진정한 신도불이, 신수불이, 신화(火)불이, 신공불이, 신불(佛)불이를 실천하고 산다면 우리 모두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정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조현준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

나는 내가 정말 잘 났다고 생각해 왔다. 초등학교시절에는 자타가 인정하는 효자였고, 중학교 시절에는 권도 14킬로미터, 왕복 28킬로미터를 구보로 힘들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언제나 일등을 놓치지 않아 방송에서 천재소년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대학원 심리학과를 졸업한 나는 정말 내가 잘 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강아지 정도의 지능을 가진 청년의 해맑은 얼굴을 만나면서, 오만과 편견, 힘겨움과 짜증, 분노까지 갖춰 있는 내얼굴을 자각하게 됐다. 나는 그 청년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어찌란 말이나,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찌란 말이나. 인간적 갈등 뿐만 아니라 학문적 갈등도 컸다.

정신이라는 내용을 서양과학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를 행복훈련이라는 구체적 심리상담기법으로 발전시켰다.

첫 행복훈련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갔다. 전원이 '자신이 살아있는 부처'임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행복훈련의 감격은 오래 지속되었으나 나 혼자만의 보물 단지에 불과했다.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정말 감격스러운, 평생동안 떠올려야 할 경험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한번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다. 내가 안내하는 극락세계는 꿈처럼, 바람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일순간만 보았다가 사라지는 환각의 나라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다시 외로워지고 마음이 황량해졌다. 그럴때 임영환 후배로부터 김재웅법사님과 법사님의 책 <두는 마

동사섭수련 통해 학문적 갈등 극복 불교공부는 '생명의 빛' 찾는 희열

교수가 된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되돌아본 나는 동양정신을 통합하기는 커녕 서양심리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었다. 한계를 느낀 나는 심리학 공부를 그만두고 차라리 막노동을 하는 것이 양심적이라고 생각했다.



음 밝은 마음)을 소개 받았다. 나는 법사님에게서, 금강경독송회에서, 법사님의 책에서 빛을 보았다. 그 빛은 행복훈련에서 잠시동안 강력하게 발산되었던 바로 그 빛이었다. 나와 모든 생명이 함께 하는 빛, 바로 생명의 빛

그때 우연한 기회에 용타스님이 지도하는 5박6일의 동사섭법회에 참석하게 됐다. 동사섭법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 백천만배 나아타며 두꺼운 나의 업장이 무너지고 찢어졌다. 나의 업장은 너무 두꺼워 소멸시키거나 녹일 수는 없었고, 단지 깎 수 밖에 없었다.

깨어진 업장의 파편에 피를 흘려야 했고, 피흘림이 너무 아파 지리산 골짜기 백장암을 무던히도 울랐다. 그러나 깨어짐의 후련함, 찢어짐의 평화로움, 처절한 고통속에서 환희심이 들었고 그 피어난 희열은 나를 절망에서 구하였다.

나는 다시 심리학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동사섭에서 얻은 기운으로 서양 상담심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양

이었다. 하루에 <금강경>을 7시간, 8시간씩 읽으면서 <금강경>의 의미를 새기던 어느날 나도 <금강경>으로 수행 좀 해보자는 마음이 일어났고, 수행차원에 서 보다 진지하게 <금강경>을 독송했다.

<금강경>을 독송하다보니 근원도 알 수 없는 나 자신의 저 깊고 깊은 곳에서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가 한방울의 물이라면, 그 빛의 크기는 바다보다도 더 컸다. 수행법을 독송하는 동안 <금강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청소시키고 정화시켜 주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이 세에서 만난 것이 정말 억울했지만, 그렇게라도 만난 것이 다행스러울 뿐이었다. <계속>

“방일하면 탐·진·치 독버섯처럼 자라 착한마음을 악한 쪽으로 기울게 해요”

죽 뽀죽 솟아있고 바위들이 거울처럼 빛나더군요. 그렇게 구경을 하면서 유점사에 갔습니다.

이종익박사한테 가서 한영스님 추천서를 드렸더니 여기서는 글만 가르칠 뿐 학생을 받고 하는 권한은 없다고 하시면서 종무소로 가서 내 사정 얘기를 해주셨 습니다. 유점사에는 재직승려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청소도 하고 새벽에 불도 모시고 하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유점사에서 월하스님과 경산스님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두분은 사십과를 공부하고 나는 대교과를 공부했습니다. 2년 정도 머무르면서 공부하고 거기서 대교과를 졸업후 오대산 한암스님 회상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중견 청년들을 수련하는 수

남은 선방 수좌로 와 있으면서 강의를 같이 들었습니다. 일체의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비 수련생인 셈이었지요.

이런 제도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국민들 마음발을 풍성히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항상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게으르거나 무관심하면 탐진치 삼독이 독버섯처럼 자라 흐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한암스님께 받았던 교화를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암스님께서는 항상 "네 마음이 네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다. 남의 마음이 네 마음이 아닌데 남의 마음을 네 마음 쓰듯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 항상 남의 마음을 맞춰주면 세상이 편하다. 아버지는 자식의 마음에 맞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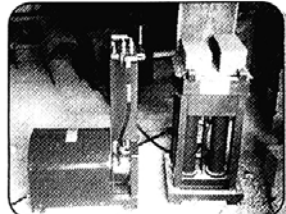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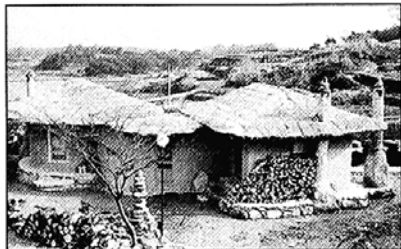
있어요. 그런데 비구승들이 걸발을 짚어 지고 공부하려 짚에 가면 푸대접을 하니 수좌들이 분심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용스님이 대총사 주지로 있을 때 내가 총무로 가서 그곳 정화를 하고 대총사 말안간 도감사도 정화를 했습니다. 정화를 하고 다니다 보면 사적인 욕심으로 나를 음해하기도 하고 고생이 많았지만 오로지 부처님정법 이어 가겠다는 마음 하나로 지내왔습니다.

정화불사 중 보림사에 갔을때는 누가 나를 모함해 반공법위반으로 100일동안 유치장 신세를 졌습니다. 비록 공산당으로 몰려 조사를 받았지만 부처님 제자가 신분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검사가 "신갑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하더군요. 그때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할말이 없

황토 흙벽돌 기계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x14x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항토마을

- 황토 관련 전문 회사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월 중순이후 연중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항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634-1237

第8回 行願文化賞 公告

- 受賞候補者 推薦 依頼 -

本 財團에서는 毎年 佛敎 文化 發展을 위하여 훌륭한 業績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褒賞하고 있사오니 다음 要領에 따라 많이 薦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施賞 部門

Table with 4 columns: 文化賞區分, 對 象, 人員, 賞金 內容. Rows include 譯經賞, 文化賞, 藝術賞, 大衆藝術賞.

- 2. 具備 書類 : ① 推薦書 (指定樣式) ... 1通
② 功績書 (具體的 內容) ... 1通
③ 履歷書 (名啣判寫眞 3장) ... 1通
④ 功績證憑資料 (最近 2年이내 實績物) ... 1通

3. 推薦 마감 : 1999年 6月 30日

4. 審査 및 發表 : 本 財團에서는 委囑한 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受賞者에게 個別通知 및 佛敎關係 新聞 發表

5. 施賞 日 : 1999年 9月29日 수요일

※ 其他 자세한 事項은 本 財團 事務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 중앙승가대학 기획실
전화 : 926-4377(교 환 302) FAX : 921-9721 우편번호 136-075

財團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2천만의 깨달음을

장수 명으로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지사 · 지국 안내

-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